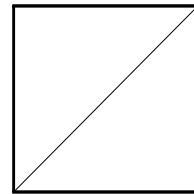


공개



의안번호	제 13 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4. 4. 3. (제 6 차)	

새로운 보험회계제도(IFRS17)  
안정화 지원방안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전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4. 4. 3.

## 1. 보고주문

새로운 보험회계제도(IFRS17) 안정화 지원방안을 보고한다.

## 2. 보고이유

□ '23년 새로운 보험회계제도(이하 "IFRS17")가 도입되어, 회계뿐만 아니라 상품개발·영업 등 보험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

○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('23.5월) 및 「결산점검TF」 운영\*('23.12월~'24.3월) 등 적극적 감독을 실시하여,

\*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감원내 보험 감독·검사 및 회계부서 공동 TF를 통해 IFRS17 결산 이슈를 검토하고, 회계기준원과도 연석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여 대응

- IFRS17 도입 후 최초 연결산·감사보고서 공시가 마무리되었으며 주주·계약자배당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

□ 그러나,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<sup>\*1)</sup> 및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<sup>\*2)</sup>으로 인해 실무 관행 정립 및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

\* 1) 기준서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,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해석·판단 차이 발생 불가피

※ 이러한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에 他기준서 대비 3배 이상(25년) 소요되고 시행도 2차례나 연기

2)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매우 긴 특성으로,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시가평가 실무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

□ 이에 IFRS17 안정화 지원을 통해 보험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여 보고함

## 3. 주요골자

### 가. 체계적 대응 관리

□ (공동협의체) IFRS17 이슈에는 회계뿐만 아니라 계리·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 작용 →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

※ 「결산점검 TF」를 확대·보완하여, 학계 등 외부전문가는 기본위원회 논의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 위원으로 추가 운영

□ (체계적 관리) IFRS17 이슈 및 질의의 접수·검토·관리 등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체계적 관리·대응 강화

- [접수]금감원 IFRS17 핫라인(공용 이메일) 등으로 접수된 이슈·질의에 대해 [검토]이슈 내용·중요도 및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검토하고, [관리]간담회·보도자료 등을 통한 설명 등 실무 활용도 제고

## 나.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

□ (3중 점검) ①보험회사 자체 점검, ②회사간 상호 점검(Peer Review)\*, ③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

\* 회사별 상품 특성, 결산 인력·시스템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선임계리사 협의회 등을 통한 상호 점검으로 비교가능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슈사항을 조기 식별

-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있는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, 회사간 상호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점검의 신속성·효과성을 제고
- 금감원 점검시 위 결과를 토대로 기초가정 관리, 내부통제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, 중대 이슈 발생시 탄력적인 현장 점검 실시

□ (소통 강화) 재무정보의 ①생산자 · ②확인자 · ③이용자별\*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선제적 이슈 파악 및 건의사항 등 청취

\* 생산자(회사 결산담당), 확인자(감사인) 및 이용자(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)

### ※ 릴레이 간담회(안)

- ① (생산자) 각 보험사 결산시 부채평가 관련 이슈·애로사항을 파악·공유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
- ② (확인자)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와 이견이 있었던 사항, 보험부채 감사시 애로사항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
- ③ (이용자) 재무정보 활용 측면에서 이슈·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,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 해소하여 시장 혼선을 예방

## 다.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

□ 원칙 중심의 기준서인 점,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서 판단·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

- 계도 기간(~'24년)內 선제적인 이슈 발굴·검토 및 시스템정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

※ 다만, 중대·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2024년도 제6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4.3.28.) 보고필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보험과	보험리스크관리국
연 락 처	02-2100-2964	02-3145-7246